



2023. 5. 4 (목)

운송/조선/기계 Analyst 배기연 RA 오정하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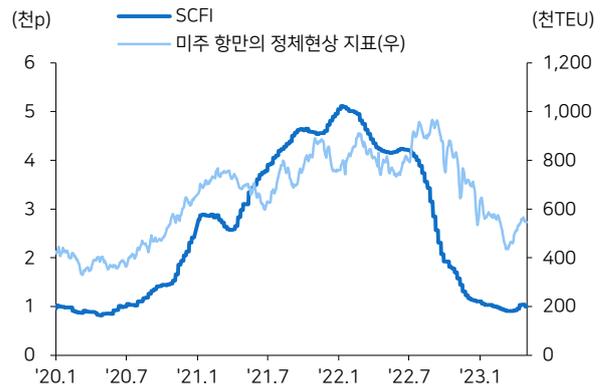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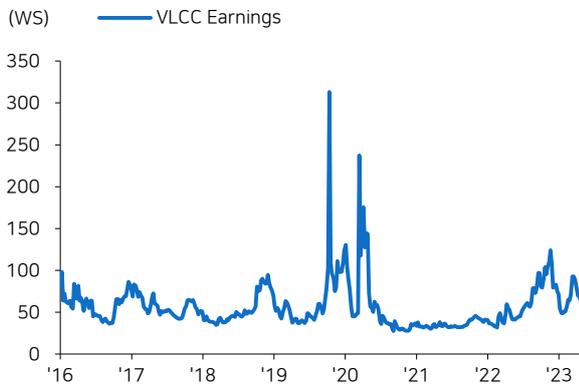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558.0p(+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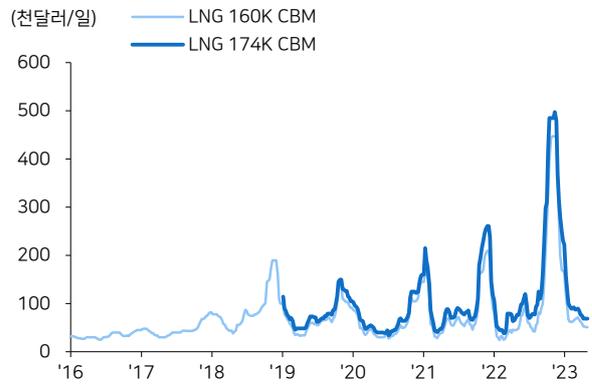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999.7p(-37.3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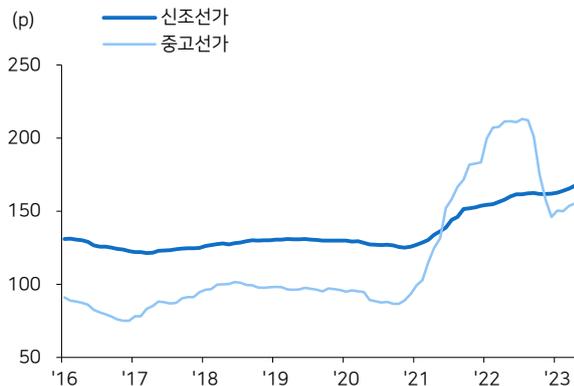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8.3p(-6.6p WoW)



LNG Spot 운임 51.3천달러(+0.0천달러 WoW)
68.8천달러(+0.0천달러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7.3p(+0.7p WoW)
155.2p(+0.6p WoW)



중국 내수 후판가격 623.0달러(-)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Construction talks swirl on first 'Russian-built' LNG carriers

러시아의 Arctic LNG2 프로젝트를 위해 1차 발주된 물량 중 쇠빙 LNG선 3척의 건조처가 논의되고 있다고 보도됨. 총 15척 중 1차 발주인 5척에 포함된 물량으로 러시아 Zveda Shipbuilding Complex와 계약되었고, 삼성중공업이 hull 건조를 수주했다고 알려짐. 4번째 hull는 삼성중공업에 남아있는데, 세번째 hull도 삼성중공업으로 돌아가 선박을 완전 건조할 수도 있다고 언급됨. 첫 두 척은 2023년에서 2024년 인도로 미뤄졌다고 알려짐. 19.8MTPA 규모 Arctic 2 프로젝트 가동일도 2023년말로 연기됐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bit.ly/3npW1BG>)

'Year of the VLCC': Biggest tankers take market share as US replaces Russian barrels

Signal Maritime에 따르면, 미국발 수요가 러시아를 대체하며 2023년을 VLCC의 해로 전환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됨. 유럽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제재로 인한 교역항로의 변화로 VLCC가 미국-유럽항로 시장에서 최대 플레이어로 부상했다고 알려짐. 미국의 유럽항 수출은 지난 3월 3년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됨. VLCC 수송이 더 경제적으로 1분기 걸프만-유럽항로 VLCC 점유율은 전년대비 7.1% 상승한 반면 Aframax는 34.0% 하락했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bit.ly/3Lw01so>)

GTT, "메탄올은 고약한 연료"

GTT가 메탄올 연료에 대해 악평을 쏟아냈다고 보도됨. 메탄올은 LNG보다 비싸고 CO2 배출량도 많다고 언급됨. 또, 메탄올은 에너지 밀도가 낮아 LNG 연료탱크보다 더 큰 연료 탱크가 필요하며, 이로 인해 화물 적재 공간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언급됨. (선박뉴스) (<https://bit.ly/3LwJZya>)

Green methanol demand for maritime to hit 255m tonnes by 2050, MAN says

MAN이 2050년까지 2.55억톤의 그린메탄올 선박연료 수요 발생을 전망했다고 보도됨. 2024~25년 고객에 이미 2,600만톤이 판매되었다고 알려짐. MAN에 따르면, 프로젝트 파이프라인상 700개 엔진 중 약 30%가 메탄올 추진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선종별로는 컨테이너선 68%, 벌크선 15%, 유조선 9% 구분된다고 언급됨. (Tradewinds) (<https://bit.ly/42oRbnc>)

Fierce Petrobras rigs race draws 46 bids for \$2 billion prize

Petrobras가 20억달러 규모 심해 시추리그 입찰을 열었다고 보도됨. 리그 용선료가 상승하고, 공급이 타이트해지며 선대를 확대하려는 계획으로 알려짐. 9개 업체가 40개 이상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알려짐. 용선료는 400,000~600,000달러/일 수준으로 언급됨. 시추작업은 2024년 1월~11월 사이 시작될 계획으로 언급됨. (Upstream) (<https://bit.ly/3NRdl8b>)

Rig players remain bullish on market outlook as dayrates continue to rise

시추업체들이 Upstream 투자 증가에 따른 floater 및 jack-up 계약 증가로 시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다고 보도됨. 2023년 해상 E&P 투자액은 약 15% 증가하고, 2024~25년에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언급됨. 이에 용선료가 500,000달러/일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짐. Transocean에 따르면, 연말에 최신 설비의 용선료는 500,000달러/일을 초과하고, 6~7세대 드릴십 가동률은 100% 수준에 유지될 전망이라고 언급함. (Upstream) (<https://bit.ly/420teT7>)